

같이 보기

: 다운복지관 무료 이동 건강검진

마음을 두드리는 다운복지관 무료건강검진

서울지역본부 다운복지관 무료 이동 건강검진

아직은 쌀쌀한 찬바람이 남아있던 지난 3월의 어느 날,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다운복지관은 이른 아침부터 조금은 들뜬 분위기로 들썩였다. 바로 매년 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지역본부가 진행하는 무료 건강검진 의료진과 의료차량이 방문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글 편집실



함께 도우며 진행된 건강검진

3월 10일 다운복지관 3층 세미나실. 오전 9시도 안 된 이른 시간부터 여러 명의 인원이 분주히 오간다. 대한산업보건협회가 매년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료 이동 건강검진이 실시되는 아침이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본부 건강진단팀은 건강검진 순서에 맞추어 진단 도구와 측정 도구들을 준비하고 약간은 긴장된 마음으로 9시가 되기를 기다렸다. 다운복지관의 환우들 역시 임시로 마련된 준비실에서 오늘 건강검진의 순서와 방법, 주의해야 할 것들에 관해 설명을 들으며 각자 순서를 정했다.

곧이어 시작된 건강검진은 접수와 소변 검사, 키와 몸무게를 재는 신체 측정, 혈압, 시력과 청력, 구강, 진찰, 채혈 등이 세미나실에서 이루어졌고, 흉부 X-ray 촬영은 외부에 마련된 의료 차량에서 진행되었다. 누군가에게는 처음 경험해 보는 건강검진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검진들이었다. 그래서 소변 검사나 신체 측정, 혈압 측정을 비교적 익숙하게 따라 하는 환우들이 있는가 하면, 복지관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혈압을 재는 기구 자체가 낯설어 머뭇거리거나 채혈을 위한 주사를 보자마자 하지 않겠다고 고개를 내저으며 한참을 실랑이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복지관



그저 조금 느릴 뿐, 처음 건강검진을 받으며 어려워하거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머뭇거리는 모습은 우리와 별로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

선생님의 다독임과 건강진단팀의 차분한 설명을 듣고 다른 환우가 어렵지 않게 채혈을 하는 모습을 보며 20여 분만에 채혈에 응하기도 했다. 조금 느릴 뿐, 처음 건강검진을 받으며 어려워하거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머뭇거리는 모습은 우리와 별로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





질병 예방과 대안을 세울 수 있는 건강검진

사회복지법인 다운회는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설립한 법인으로 장애인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왔다. 그 일환으로 다운복지관은 전문적인 직업재활서비스와 고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사실 이곳의 환우들은 일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기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모든 순간 보호자나 복지관 선생님이 동행하거나, 장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보다 원활한 건강검진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장애에 따라 더욱 세심한 측정과 주의를 기

울여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복지관에 방문해 검진을 실시하면 환우들도 익숙한 환경에서 보다 편한 마음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덕분에 이날 건강검진은 다소 느리게 진행되었을 뿐, 낯선 건강진단팀이나 검진 자체를 거부하거나 크게 두려워하는 모습은 없었다. 무엇보다 다운증후군 장애인을 포함한 성인 발달장애인은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의 이상 징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 정기적으로 검진을 통해 질병 예방 및 대안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은 다운복지관과 환우들 모두에게 소중한 기회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나눔

오전 9시부터 시작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어진 이 날의 건강검진은 점심 시간이 다 될 무렵 마무리가 되었다. 건강검진을 위해 전날 저녁부터 당일날 아침까지 금식을 해야 했던 환우들이 검진을 마치자마자 한달음에 식당으로 달려간다. 조금은 낯설고 또 조금은 무서웠을지도 모를 건강검진을 잘 마친 이들은 자신의 키와 몸무게, 또는 시력을 자랑하기도 하고 채혈하는데 주사바늘을 무서워하지 않고 잘 마쳤다며 무용담을 늘어놓기도 한다. 오전 내내 환우들의 건강과 안전에 신경을 쓰며 검진을 담당했던 건강진단팀 얼굴에도 시작 전에 어렸던 긴장이 어느새 걷히고 은은한 미소와 땀방울이 비쳤다. “우리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안전, 지속가능한 환경의 핵심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겠습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지역본부 강미원 본부장의 말이다. 이번과 같은 무료 이동 건강검진 사업은 의료 취약계층의 기본 건강 권리를 보장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도록 응원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이다. 이것은 ‘지역 사회 주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이라는 협회의 가치 실현에 따른 것이다. 강미원 본부장은 이러한 사회 가치의 지속적인 실현을 약속한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 문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석하고, 보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복지관에 방문해 검진을 실시하면 환우들도 익숙한 환경에서 보다 편한 마음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